

하남산단 또 발암물질 배출... 주민들은 불안하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 유출 이어 세방산업 수년간 배출 파장 악취민원 증가 속 광주시 “규제 근거 없다”며 실태파악 소홀 환경운동연합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건... 안전 방치” 지적

광주 하남산단에서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 유출 사고에 이어 수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1급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대단위 주거단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하남3지구와 수완지구 주민들은 매년 하남산단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에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실태파악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12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산단 내 인근 주거지역에서 접수된 악취관련 민원은 지난 2013년 38건, 2014년 33건, 지난해 29건이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27건에 달한다.

또 하남산단 내에서 접수된 악취 민원도 지난 2013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했고, 올 7월 현재도 17건이 늘었다.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은 드라이클리닝 후 세탁물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발생한다.

세방산업이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왔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실태파악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세방산업이 대기중으로 배출한 TCE는 지난해 2012년 439t 등 지난 2014년까지 6

년 동안 무려 1570t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3월에야 환경부로부터 세방산업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공문을 받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세방산업 내 TCE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제수출시설의 농도는 59.32ppm이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TCE 신규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50ppm 이하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이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취한 조치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가 전부다. 내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규제에 나서겠다는 게 광주시의 생각이다.

수완지구 한 주민은 “매년 여름이면 창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광주시가 그동안 아무런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였어도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광주시와 정부, 세방산업이 TCE 피해 조사와 함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는 하남산단은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으



6년 연속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세방산업(점선 안) 뒤편으로 대단위 주택단지인 광주 수완지구 인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로 광산구 흑석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남3지구, 인구 8만이 사는 수완지구, 운남지구 등 대단위 주택단지가 코앞에 위치하고 있다. TCE는 과다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와 간·신장 손상,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발암물질을 매일 1t 가까이 쏟아낸 것은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다”며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세방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배출량이 아니라 작업장

내 농도”라며 “사용한 TCE는 3단계 제감장치를 통해 배출돼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추가 제감시설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준은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1차례씩 오염도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인지자 kki@kwangju.co.kr

사고조사위 “상판 철거후 재시공해야”

철산대교 2차 피해 예방위해 교각 하부 성토공사 나서

다리 상판이 시소처럼 기울어진 영광철산대교 사고 현장에 대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고가 난 상판 등은 재시공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심종성 한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고가 발생한 14번 교각 하부 성토공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 교각 하부 성토가 필요하다”며 발주청에 보강공사를 요청했다.

앞서 사고조사위는 “기울어진 상판은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앞서 심종성 위원장은 “기울어진 상판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을 뿐더러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

지난 9일부터 사고 원인규명 조사에 나선 사고조사위는 이날 민간전문가 3명을 추가로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강풍이 상판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진 것인지, 상판 작업 중 균형이 맞지 않아 상판이 기울면서 2차로 강풍이 부러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철산대교는 국도 77호선으로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와 무안군 해례면 송석리를 잇는 사장교다. 길이 1820m, 폭 11.5m 편도 2차로이며, 2012년 9월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1467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교량 공정률은 50.8%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대우건설(자본 54%), 대보건설(15%), 남양건설(13%) 등이 공사를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박형진 기자 qkrh@

영동한 사람 성폭행 피해자로

신상 올린 일베회원 5명 입건

지난 5월 발생한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청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인터넷 검색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안군 한 초등학교를 찾아냈고, 이를 이 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소개’ 등을 보고 교사 A(여)씨의 신상을 알아냈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 사진 등과 함께 지난 달 1~2차례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었으나 이씨 등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샀고, 계속된 연락에 대인기피증이 생겨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부경찰 악재 예방 ‘맹호도’ 기운 다했다

직원간 폭행·술집대·성추문·음주운전 등 연일 곤욕

광주북부경찰서가 연일 시끄럽다. 올해 전국을 떠돌며 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순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술집대를 받는가 하면 직원들의 성범죄, 폭행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90대 초·중반 악재를 예방하기 위해 내건 ‘맹호도’의 기운이 다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12일 이상문제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황도(56) 경위를 지귀대로 인사 조치했다. 황 경위는 지난 8일 집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의심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밤에는 북부경찰서 한 지구대 조모(52) 경위가 같은 지구대 최모(51) 경위에 폭행당했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이들은 회식 후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순경시보가 파면됐고, 지난 4월에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찰이 파면됐다. 또 4월에는 한 직원이 음주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상순 북부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은 지난 5월 민간 협력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고 일부 직원들은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민간 협력위원이 술집대 자리 이후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북부경찰서 내에 걸린 ‘맹호도’ 2점이 대한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다. 대형 악재를 예방하기 위해 건 그림의 기운이 다했다는 것이다. 경찰서 1~2층 계단과 소회의실에 있는 맹호도 2점은 각각 1992년과 1996년에 내걸렸다. 이 맹호도는 1988년 개서 이래 부임한 경찰서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자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권유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인지자 kki@kwangju.co.kr

역대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어촌계장·어민 무더기 적발

여수경찰, 13명 불구속 송치

역대 어업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촌계장과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경찰청은 어업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주시 모 어촌계장 A씨와 어촌계 운영위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속한 어촌계가 2015년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로 선정된 후 피조계 총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1억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 사업비의 10%(자부담금)만 어촌계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어촌계 운영위원들과 자부담금과 어장 청소비 총담금과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조금 사업 시행 장소인 패류 양식업 어장 등에 대해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권 행사 계약자 B씨와 1억원에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어촌계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분배하고 행사 계약자 B씨에게도 이 금액만큼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수시 공무원에게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했고, 행사 계약자인 B씨는 행사 계약 장소가 보조금 사업 시행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총장 공백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대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로 손해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일 경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생 3011명은 총장 임용 후배자를 추천했음에도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 22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총장 장기 부재 사태로 학교 재정상 손해를 비롯, 취업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774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2-11-11 103호	아파트	470,000,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3384	1	광안동 1306 수완1단지중흥에스-클래스 105동 8층 801호	아파트	344,000,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3629	1	북구 칠담연신로 184, 108동 3층 302호	아파트	238,000,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3964	1	서구 금호동 240-10 로엔시아 101동 7층 7호	아파트	300,000,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5타경 17959	1	서구 광천동 568-1 240㎡	대	495,642,7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1234	1	북구 중외길 17번길 5-2 49.58㎡	대	64,504,6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3759	1	서구 백전동 363-1 582㎡	대	236,029,78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14257	4	동소 163-1 596㎡	대	40,212,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886	6	동소 163-4 279㎡	대	17,329,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1494	1	서구 마산길 19-18 35.37㎡	대	157,716,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121	1	동소 156-1 668㎡	대	28,724,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2236	1	광안동 우산동 1060-9 138.9㎡	대	26,182,8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435	2	동소 335-1 25289㎡	임야	177,023,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534	1	나주시 경현동 561-3 278㎡	대	31,692,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879	1	나주시 월곡면 알산리 363-1 162㎡	대	140,414,49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3278	1	창성동 남면 풍산리 137-32 780㎡	대	132,912,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4172	1	동소 118-1 126㎡	대	3,276,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6085	2	동소 123 1055㎡	대	7,414,4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6081	2	동소 261-4 59㎡	대	7,044,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6081	3	동소 261-5 87㎡	대	7,044,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61387	1	회선군 한천면 정리리 산22 51471㎡	임야	561,8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2534	2	나주시 경현동 377 251㎡	대	73,980,4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6타경 4370	1	광안동 임방울대문26번길60-5, 4층 422호	대	70,000,00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20337	1	광안동 월전동 1002 8264.2㎡	경비	5,547,218,9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5타경 20337	1	광안동 평동산5번우로18가동호 1, 124㎡	경장	5,547,218,9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5타경 20337	1	동소 18 다동호 1, 430㎡	경장	5,547,218,9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5타경 20337	1	동소 18 라동호 1, 2층각243.89㎡	경장	5,547,218,9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2015타경 20337	1	동소 18 마동호 189㎡	경장	5,547,218,950	매각대금, 채외 및 채권부담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